

# 사역에 부름받은 여성들

연합감리교회 6과 성경 공부

학생용 교재



## 저자

딜리아 햄버슨, 기독교학 종교 교육자  
카밤바 키보코 목사, 성서학자 (박사)  
레이시 워너 목사, 역사학자 (박사)  
M. 린 스캇 목사, 정리/편집

## 발행처

연합감리교회

## 총회여권신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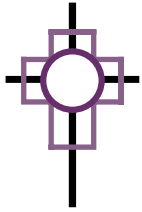
협찬  
연합감리교회

##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번역: 박찬경 (Chan Gillham)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사역에 부름받은 여성들

연합감리교회 6과 성경 공부

교사용 교재

표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NRSV 성경을 사용함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서문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은 여성목회자의 온전한 권리인정 50주년 축하를 마쳤습니다 (2006). 우리 교단은 “용감한 과거를 축하”하고 “담대한 미래를 주장” (2006년도의 주제)하는 사역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갈 것 입니다.

이 여섯과의 공부는 연합감리교회의 여성과 남성을 모두 초대하여, 성경공부와 역사 속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 현재를 더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더 신실하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왜 여성들이 교회의 사역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왜 여성들이 안수를 받을까요? 우리는 왜 대화 속에 서로 동의 못하는 점이 있고 의견대립이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온전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의 용감한 과거와 담대한 미래를 지향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부를 하고, 대화 하고, 경청할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 1과: 아웃사이더(외부인, outsider)-인사이더(내부인, insider) 6

여러분은 아웃사이더처럼 느껴 본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은 인사이더였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웃사이더인 한 가나안 여인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아웃사이더이고 누가 인사이더인지를 새로운 이해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 2과: 부르심 9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합니까? 부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합니까?

### 3과: 여성의 정체성 13

여성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지고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그 사회가 정하는 좁은 제도 안에서 규정지어온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 4과: 탐구, 신앙/깨달음 20

삶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깊은 믿음과 행동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도전을 때때로 받습니까?

### 5과: 깨어짐-온전함 27

연합감리교회는 성서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 안수를 포함한 여성의 온전한 참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 6과: 앞으로 나아가다 33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어떻게 신실하게 따르겠습니까? 당신이 여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남성이라면, 어떻게 여성 지도력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는 믿음의 삶을 계속하시겠습니까?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Addendum One: Historical Timeline

---

A timeline of women's ministry/leadership in Methodism from mid-1700's to present.

## Addendum Two: Website Links

---

Four United Methodist general agencies/commissions offering resources regarding women's leadership and ministry.

## Addendum Three: General Conference 1956 Reader's Theatre

---

The 1956 Gener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Church made the historic decision to grant full clergy rights to women; this resource shares the story.

## Addendum Four: Bibliography

---

A brief annotated bibliography regarding women called to ministry.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저자들에게 대하여

### 딜리아 헬버슨

50년 이상을 여러 규모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중요성에 헌신함. 기독교 교육의 훈련을 받았고, 개체 교회 뿐만 아니라 연회,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모든 연령층을 위한 교과 과재물을 썼고, 교회 리더십과 영성개발을 위한 저서 20권이 있다. 딜리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www.deliahelverson.com](http://www.deliahelverson.com)에 있다.

### 카밤바 키보코

카밤바 (진) 키보코는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82년 남콩고 연회에서 여성으로써는 최초로  
집사목사 직분을 받았고, 1983년 정회원 장로 목사로 안수받았다. 그녀는 현재 텍사스주 햄스테드시의 베들레헴 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 중이다. 그리고 덴버대학교의 아일리프 신학교에서 히브리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끝내가고 있다.

### 린 스캇

연합감리교회 위스칸신 연회 출신의 안수 받은 여성 목회자 (장로 목사). 린은 개체 교회 목회, 교단 기관의 (고등교육 사역부) 스태프, 그리고 감리사로 재직했다. 현재 그녀는 안식의 길(Sabbath Way, LLC)의 디렉터이다. 그녀의 현재의 사역은 교회 회중들과 개인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매일 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보살피 나가기” (“tending to the holy”)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성훈련, 수양회, 워크숍을 주관하고, 교단 내의 자문자 역할을 한다.

### 레이시 워너

텍사스 연회 출신의 안수 받은 여성 목회자 (장로 목사).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있는 듀크대학교 신학교에서 학무처 부처장 및 부교수로 복음주의의 실천과 감리교학을 강의한다. 최근에 발행된 저서로 여성의 구원: 복음주의 신학 이론과 실제의 재발견 (베일러 대학 출판부, 2007)이 있다. 이 저서에는 그녀의 관심사인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개신교 여성들이 이야기가 실려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1과

### 아웃사이더(외부인, OUTSIDER)- 인사이더(내부인, INSIDER)

#### 주제

종교와 기독교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사회적인 “아웃사이더-인사이더”의 장벽을 깨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환영하심을 알려줍니다.

#### 초대

아웃사이더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사이더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웃사이더였던 한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가 밖에 속한 외부인이고 누가 안에 속한 내부인인지에 관해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해 줍니다.

####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21-28

#### 성경 공부

(이탤릭체로 쓴 것은 헬라어입니다. 각과 끝에 있는 용어집을 참고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외부인, 즉, 아웃사이더인 가나안 여인은, 당시의 종교적 벽에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특징인 “인사이더-아웃사이더”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당시 존재하던 여러 장벽에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면밀히 살펴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행동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22절)<sup>1</sup>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시하신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녀를 보내버리시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사회적인 경계선을 침범하기 전의 원래 그녀가 속해있던 위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명백히 “아웃사이더” 혹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4절)라는 말씀은 이 여인이 아웃사이더로서의 “다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24절)이나 제자들의 태도에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은 특별합니다. 이 여인은 온 몸을 다해 자신의 느낌을 두 개의 동작을 통해 전달합니다.

첫째, 이 여인은 예배의 동작인 듯한 몸의 언어를 침묵 속에서 표현합니다. 성서는 “그녀는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능동적인 침묵입니다. 둘째,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라는 간청하는 말을 합니다.

1 히브리어와 헬라어 텍스트는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자 카밤바 키보코 목사님의 번역이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이 여인의 지칠 줄 모르는 반항에도, 예수님은 대답을 부드럽게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 부정적인 태도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헬라이어 - 쿠나리오이스, kunariois)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sup>2</sup> (26절) 라고 이 여인에게 답하십니다. “주여, 울소이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그녀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무시하는 말씀을 받아드리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의 개념에 도전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관계의 보다 넓은 의미를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끝없는 부드러운 반항에 감동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시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의 딸은 그 순간 치유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 넘어 모든 이들을 포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 유대교의 중요한 전통을 깨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드-아웃사이드의 장벽이 부드럽게 도전되었고, 극복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정된 지역에 속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역이 되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 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 급박했기에 더 용기있고 지혜로왔던 그녀의 태도는 인종과 성별의 장벽을 포용으로 바꿉니다. 유대인들에게 받아 들리지 않는 가나안 사람,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 속한 여성인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둘째, 이 여인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끝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 28:19). 이는 이 여인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 성경 말씀 묵상

만일 가나안 여인이 그녀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상에 함께 앉지 않은 채 상 밑이나 상 근처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당신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면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언제 당신은 아웃사이드였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왕따” 혹은 “아웃사이드”는 누구입니까?

(시간이 있고 추가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를 계속해서 읽어 주십시오.)

## 추가 성경 공부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 나오는 동사 엑세르코마이(exerkomai)는 헬리어로 “밖으로 나가다, 혹은 ~로 부터 나오다”를 의미 합니다. 이는 우선 예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로 부터 나오다의 움직임 뜻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21절). 또한 이와 흡사하게, 가나안 여인의 행동에 관련된 첫 동사 역시 엑세르코마이입니다. 두 경우 다 이 동사는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이 어디에서 끝날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은 어딘가에서 만나질까요?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공부때 배운 것처럼 제자들이 관여합니다. 제자들의 첫 행동은 동사 프로세르코마이(proserkomai) 로 이는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어느곳에서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가오거나 앞으로 나섭니다. 성경의 저자는 제자들이 그들이 있던 장소로 부터 언제 나오는 행동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두번째 행동은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소리치는 그 여자를 보내 버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이 제 자리,

즉, 방금 넘어온 선을 다시 넘어가서 그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명백히 “아웃사이드”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 여인의 말에 답하실때에 더욱 보여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4절)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속하지도 않고 제자들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2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 해 보시는것이라 해석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마태와 마가) 이 이야기를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도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서 속의 여인들 ( 캐롤 마이어, 토니 크레이븐 & 로스 S. 크레이머 편집;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 윌리엄 B. 어드먼즈 2000), 413쪽의 에이미-질 르빈이 쓴 “가나안 여인”을 참조.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아웃사이더인 여인이 계속 우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만나러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27절)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한 대답은 그녀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작은 개들도 그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인사이더”로써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이것은 소유관계대명사인 “그들의”라는 말에서 보여집니다. 작은 개들은 “그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주종관계도 관계임을 주장합니다. 아랫사람들을 거느리지 않은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드러우나 끈임없는 저항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시어 그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여자의 딸이 바로 그 순간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용어	
엑세르코마이	(헬라이어); “밖으로 나가다, 혹은 ~로 부터 나오다”; 마태복음 15:20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 사용됨
쿠나리오이스	(헬라이어); “작은 개들”; 마태복음 15:26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 사용됨
프로세르코마이	(헬라이어); “접근하다”; 마태복음 15:12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중 제자들과 관련하여 사용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2과

### 부르심

#### 주제

세례받은 모든 기독교인은 사역에 부름을 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초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에 부름받습니다. 이 초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지가 없더라도 그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용기있게 “네”라도 응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까?

#### 성경 말씀

요한복음 4:1-42; 사도행전 2:42-47

#### 성경 공부<sup>3</sup>

모든 사람은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그가 속한 마을 사람들의 지지도 없이, 부르심을 따르는 위험을 감행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온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인종차별, 부족주의(tribalism, 한 사람을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여 어떤 특정 그룹으로 규정하는것), 그리고 성차별이 있는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낮에 들어오셔서 우물가에 앉으시는데서 시작됩니다(요한 4:1-6).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녀와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십니다(요한 4:7-15).

콩고민주공화국의 상가(Sanga)부족<sup>4</sup>여인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가다니, 이 여자 분이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콩고의 어느 마을이나 내가 살던 마을에서도 여자들은 정오에 우물가에 가지 않습니다. 어느 여자도 이 일을 첫닭이 울때쯤 아침 일찍 마치려 합니다. 거기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우물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을 걷기가 더 쉽습니다. 깊이 숙이지 않아도 되고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둘째, 우물에 빨리 갈수록 더 맑고 깨끗한 물을 떠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주면서 그 빛깔을 보면 아침 몇시경에 우물에 갔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물에 일찍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침에 여자들이 우물로 걸어가며 서로 친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기에, 상가 여인은 “왜 여자가 한 낮에 우물에 가며, 남자가 왜 한낮에 우물가에 있어야 하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이뤄집니다(7-15절). 먼저,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어째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그 당시 존재한것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계감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심으로써 벌써 당시 보편화 되어 있었던 성별의 규범(남성/여성)과 종교와 인종의 벽을(사마리아인/유대인) 도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sup>5</sup>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하는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10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의아해 합니다.

3 성경공부 자료는 카밤바 키보코 목사님이 쓰셨는데,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아프리카 여성의 관점을 보여주심.

4 상가는 중앙 아프리카의 남콩고의 한 부족의 이름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도 도전적인 목소리였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우물을 주신 우리의 선조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예수님이 주실 물과 야곱의 우물물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모두 다시 목말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주실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14절)고 하십니다. 이 첫 부분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응답으로(15절) 막을 내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을 받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심으로 계속 이 여인의 정체를 밝혀가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에 동의 하시면서,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18절) 합니다. 이제 왜 이 여인이 (상가족의 관점으로 볼 때) 정오에 우물에 갔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낮은 신분때문에, 이 여인은 마을 안의 공동체 생활에서 떨어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침 일찍 물 길러 우물로 걸어가는 여인들 사이에 걸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부터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홀로 정오에 와서 별로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길어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예언자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실 수가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임에 틀림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녀가 아는 여섯명의 남자와 닮은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이 분은 마실 물까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은 예언자가 틀림없습니다!

대화가 계속 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자이신 것이 명백해 집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른 예배법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21절) “그러나 영과 진리로”(23절)하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24절)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일이 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26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누군지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메시지였습니다(31-38절). 이 여인은 수치, 절망,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삶에서 희망과 용기로 가득찬 삶으로 옮겨옵니다.

그녀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음에 품고, 물동이를 버려둔채, 동네로 들어가서 “내 삶의 이야기를 낱알이 말해 준 그 분을 보러 오십시오. 이 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29절)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30절). 사회에서 거절 당하고 버림받은 이 여인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첫 복음 전파자, 첫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무엇인가가 예수님과 대화 중 변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기를 경멸했던 남자와 여자들에게 가서 대면하여 “내 삶의 모든 행적을 말해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설교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 그녀와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30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 이틀 더 머무시기를 청했습니다(40절).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사도행전처럼 “사마리아 여인 행진”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41절)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그녀의 간증의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의 설교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의 동안 대화가 오고 갑니다. 대화 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앞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빠진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 여인이 우물로 와서 물동이를 가져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계속 물을 마셔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합니다. 설혹 우리 삶이 바뀌는 영적 경험을 체험한다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성경말씀 묵상

당신이 우물가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 들려옵니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 여자,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런것이 상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나요?

성경은 말해 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꺼이 타인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성별, 인종, 민족 등 사회 문화의 규범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남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뚝 경험하십니까?

## 역사적

(메리 보산켓의 봉사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 사도행전 2:42-47을 읽으십시오.)

누가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라는 사역을 허락 받았습니까.<sup>6</sup>

초기 감리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가진자나 없는자나 모두에게 세례받은 하나님 자녀로써 기독교 사역을 행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시며 마음과 삶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을 장려하셨습니다.

감리운동 초기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여인들 중에 런던 외곽에 살던 젊은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메리 보산켓은 자신의 물려받은 유산을 기부하며 감리교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것과 육체를 위한 것 중 어느것을 더 해야 할가요?”<sup>7</sup>

메리 보산켓 (1739-1815)은 감리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신, 청빈, 여성 지도력 등 당시에는 반문화적인 가치에 절대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보산켓은 에섹스 지방의 레이튼스톤에서 부유한 영국성공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자녀 중 하나였고, 딸 중에 둘째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감리교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부모가 속해있는 영국성공회나 사회적인 부유층의 생각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성공회에서 세례받고 입교했으나, 감리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성화(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장함)의 경험을 하게되고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주의적 사역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양육에 힘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산켓은 아주 어렸을적 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였을때 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충실히 하면 복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sup>8</sup>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명은 의도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청빈한 삶을 살며 버려진 아이들, 병든자, 가난한 자를 돕는것을 포함했습니다. “종종 나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모두 한 성령을 믿으며, 가진 모든 것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sup>9</sup>라고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메리 보산켓은 요한웨슬리목사와 깊은 우정을 나눴는데, 이를 통해 목사님의 자문을 자주 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사역 중의 일부는 감리교 안에서 속회지도자, 환자 심방자, 권면자 및 설교자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산켓은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나누었고, 감리운동 안에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보산켓은 사라 라이언 (1724-1768)과 사라 크로스비 (1729-1804) 등 다른 두명의 감리교인 여성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6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세례의 언약 I”과 “세례의 언약 II” 35,40페이지

7 메리 보산켓, “귀부인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 보낸 서신,” (런던:1764), 10, 보산켓은 이 부분을 자신이 17세때 보낸 편지의 자기 소개 부분에서 발췌 함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가난하고 단절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
- 의도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질서있는 삶
- 여성의 지도력 기회와 배양

웨슬리 목사님은 첫 10년간은 여성들이 공공 장소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주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에게 습격을 받거나 감리운동에 반감이 생길지도 모르니 설교하는 것처럼 하지말라고 은밀히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태도는 점차 바뀌어서 “특별한 부름”<sup>10</sup>을 받은 여성에게는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개방적인 태도는 적어도 그 일부가 보산켓의 사역과 그녀가 보낸 편지에 관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1771년 여름 동안에 웨슬리 목사님께 보낸 편지는 감리교에서 최초로 여성의 설교를 심도있게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sup>11</sup> 보산켓은 감리교 여성들에게 설교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은 흔하게 신학적으로 해석되는, 디모테 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특히 교회 내에서 여성이 설교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훈계의 관습으로 사용된 것인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모순된 표현이 나옵니다.<sup>12</sup> (제5과에서 이 성경말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보산켓에게 보낸 답장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보산켓의 소명과 일반적인 감리운동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두둔하셨습니다.<sup>13</sup> 같은해 11월에 보산켓에게 보낸 편지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으로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것이 아닙니까?”라고 역설하며 그들의 사역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sup>14</sup>

몇세기에 걸쳐 여성들은 계속 메리 보산켓에게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보산켓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회 규범에 도전했던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 역사적인 순간의 묵상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성들을 사역으로 인도하고 도움을 준 것은 감리교 역사상 주목할 일입니다. 당시 이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성들은 당시의 신앙체제를 논하기 보다는 경건과 정의를 중요시한 감리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 오늘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성의 소명감을 장려하고 여성 지도력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초기의 감리교인들은 사도행전(사도행전 2:42-47)을 본보기로 삼아 함께 생활하고 자원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같은 삶의 방식과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 그들이 의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집단 내에서 각자의 소유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 당신은 교회 등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른이들과 자원와 경험 등을 나누며 서로의 사역과 소명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 용어

성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라남
부족주의	어떤 사람을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에 따라 다른 그룹과 그가 속한 그룹으로 나누는것

8, 9 메리 보산켓, “귀부인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 보낸 서신”: (런던: 1764), 9페이지

10 11 킬코트에서 인용, 요한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의 여성 설교자들, 142페이지

12 손 길, 여성과 영국교회 (런던: 기독교적 지식 알리기 모임, 1994) 61쪽 보산켓의 주장을 요약

13 톨컷, 요한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의 여성 설교자들, 143쪽

14 요한 웨슬리, 메리 보산켓에게 보낸 편지 (1773 11월 17), 서신들, 요한 웨슬리의 저서중 볼륨 XII (매사추세츠, 피바디: 헨드릭슨 출판사, 1986), 404페이지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3과

### 여성의 정체성

#### 주제

여성의 정체성은 흔히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인정에 의한 정체성이 아니라 틀에 박힌 사회적 관습이나 세상적인 역할로 정의됩니다.

#### 초대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우리는 하와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오늘날 이 사회의 여성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성경 말씀

창세기 1:26-3:24, 출애굽기 38:8

#### 성경 공부

이 성경공부의 저자들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정체성에 관해 대화를 나눌때, 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한 남자 교인이 ‘나 자신의 세계가 변했는데, 아주 놀랍고 멋집니다. 저는 이 지역 학교의 교사인데, 교장 선생님이 여성, 제 의사 선생님도 여성,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도 여성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고 이 교인은 여성의 지도력과 정체성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어떤 여자 교인이 와서 질문했던 가장 최근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인은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라고 나와있는데, 왜 여성이 설교자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해석과 번역에 대해 언급하고,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때 (이 경우엔 영어로) 번역자가 그런 단어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교인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아무도 내게 이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그들의 정체성과 사역을 알게 해야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에 많이 영향을 받은 문화적 배경에서, 창세기의 하와의 이야기의 해석은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하와의 이야기는 널리 번역,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어떤 특정 역할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3장까지의 이야기에 대한 많은 학문적 연구, 번역, 그리고 해석을 이 3과에서는 모두 강조 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하와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대화할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다

(이탤릭체로 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과 끝에 나오는 용어를 읽고 참조하십시오.)

첫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편집한 사람이 6세기 정도에 집필을 다 마치고, 모세5경의 소개서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현재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창세기 1:26-3:24)는 하와에 대해 많이 알게합니다. 창세기 1:26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adam)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쓰여있습니다. 사람 (adam)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아담 (adam, 사람)은 주어인데,

한 사람 이상인 복수명사로도 쓰여집니다.<sup>15</sup> 아담(adam)은 “우리들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되었습니다. 이 일반적 용어 아담(adam, 사람)은 존재를 의미 합니다. 바다, 공중, 땅에 사는 모든 생물과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구별되며, 그 존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단적인 인간, 혹은 개인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sup>16</sup> 필리스 트리블이나 데이비드 J.A. 클라인즈 같은 성서 학자들도 아담은 성별이 없다고 여깁니다.<sup>17</sup>

다른 학자들은 이 구절을 아담(adam, 사람)을 남성의 이름으로 여기며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별이 남성으로 정해진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기독교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토론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 서로 상대방을 다루는 모습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히브리어와 인간의 창조를 살펴 볼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에 공감 할것 입니다.

##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 과의 끝 부분의 용어를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ha’adam, 하아담) 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zakar 자카르)와 여자 (neqebah 네케바)를 창조하셨다” (27절) 라고 서술합니다. Ha’adam 하아담 이라는 말은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로 “그”를 지칭합니다. 그 어휘에는 성별이 있으나, 특별히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sup>18</sup> 어떤 학자들은 하아담이 양성적인 존재이며, 하아담 창조 후 하나님이 다시 이를 남자와 여자 두 인간으로 나눈 것이라 해석합니다. 남성 (zakar 자카르)과 여성 (neqebah 네케바), 이 두 단어는 성별이 확실하게 처음 사용된 단어이며,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의미합니다.<sup>19</sup>

창세기 1:26-27에 따라 요약하자면, 아담 (adam 사람)은 한 사람 이상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아담 (adam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인간 이외의 피조물을 돌보는 책임을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에 권한과 책임을 나눌 뿐 아니라 (1:26, 28) 하나님의 권능과 삶도 20 나누는것 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둘 다 일반적인 아담 (adam 사람) 입니다.

## 하나님께서 배필을 창조하시다 - 창세기 2장

(제3과 끝의 용어집을 참조 하십시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두번째 창조 이야기도 창조와 인간의 본질에 초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피조물

Ha’adam (하아담)은 하나님이 두번째 창조 행위로 인간을 형성해 가실때 까지 (남자와 여자로) 성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2:15ff).

우리는 주하나님께서 이 하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곳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음을 알게됩니다 (15절). 그리고는 그가 배필이 필요한것을 보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ezer)을 지으리라”(18 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돕는자 (ezer)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15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의 번역자들은 히브리어의 엘로힘 Elohim (복수형)을 하나님, 하나님들이나 신들이 아닌, 한분의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단적이고 표괄적이 신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개념으로 봅니다.” 히브리 성서에 그렇게 설명되어있지 않지만, 만일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 속의 세분 이라면 아담은 복수가 됩니다.

16. 이 부분은 남콩고에서 사용하는 상가어나 스위힐리어로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아담 이라는 말은 분투분투라는 중성어로 번역되는데 남성형이 될 수도 있고 여성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히브리어나 다른 아프리카 언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17. 데이빗 클라인즈, “아담, 히브리어로 ‘인간, 인간성’: 제임스 바에게 답하다” 베투스 테스타멘툼3 (2003):297-310

18. 제임스 바는 아담은한 남성을 지칭,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때는, 한 페의 남자들 인데 그 안에 여자들도 포함될수 있다고함. 그의 저서,“한 남자, 아니면 모든 인간?”을 참고. 데이빗 클라인즈 인용.

19 일로나 라시코는 동의 할것임. 그녀의 저서 “어두운곳들: 영국 르네상스 시기의 성경 번역에 나타난 반유대주의와 성차별 (세필드: 아몬드, 1990), 80-96쪽

20. 노웰, 132페이지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돕는자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21번 나옵니다. 4번은 군사적인 도움, 17번은 하나님 자신이 돕는자 이십니다. 이 성경 속 어디에서도 이 돕는자라는 단어가 더 약하다거나 열등하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번역자가 택한 영어 단어 “돕는자”(helper, 스와힐리어로 “무사이지지,” 불어로는 “에드”)는 종속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가 동반자이며 그들이 함께 다스린다(창 1:26)는 말씀과는 대조되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아담 (ha'adam)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아담이 (ha'adam) 잠들때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21절).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 변화가 오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상호 의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자 (ishshah 이시샤)를 만드셨습니다 (22절).

하'아담(ha'adam)의 반응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 (ish) 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ishshah) 라 부르리라”(23절)라고 합니다. Ish가 여성, 남성을 나타내는 단어에 모두 쓰이는데, 그렇다고 여자가 종속적인 존재로서 중요치 않게 여겨지는 존재라는것이 아닙니다. 대신 남자는 단결과 상호의존을 선포합니다. 남자는 그가 땅에 가까운 것을 표현하는 말인 일반적 단어인 Ha'adam에서 부터 나온 adam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가까움, 닮은 모습,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Ishshah라는 말로 여자를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남녀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번역을 통해서, 여자는 열등하고, 죄 많고, 요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여성을 모독하는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실제로 동반자, 배필, 나아가 하나가 되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 성경 말씀 묵상

두개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 3장)는 지금까지 인간의 타고 난 죄성뿐 아니라 여성의 열등함을 보여주는 증거 본문으로<sup>21</sup> 사용되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자가 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안되는지를 정당화했습니다.

- 창세기 1:26-27에 나오는 여성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고려할 때,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열등주의가 보입니까? 설명하십시오.
- 당신은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가정, 공동체, 교회에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창세기 1:26은 흔히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할 때 인용됩니다. 이 구절이 꼭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추가 성경 공부를 위한 시간과 관심이 있으시면 20페이지를 보십시오.)

## 역사적

여성의 정체성은 흔히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인정에 의한 정체성이 아니라, 틀에 박힌 사회적 관습이나 세상적인 역할로 정의 됩니다.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미국 국회의사당의 동상 홀에<sup>22</sup> 동상이 설치된 몇 안되는 여성인 프랜시스 E. 윌라드 (1839-1898)는 감리감독교회의 실신한 신자였습니다. 윌라드의 기독교 신앙은 웨슬리 전통의 주제인 거룩함에 기인하여 교육자로서 개혁자로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윌라드는 1871년에 새로 설립된 에반스톤 여자대학 총장으로 초빙되어, 학사학위를 수여한 최초의 미국 여성이 되었습니다.<sup>23</sup> 그러나 이 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곳은 NWCTU<sup>24</sup> (National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전국 기독교 금주연맹)였습니다. 1879년 NWCTU 회장으로 선출되어, 거의 20년 후 그녀가 임종할 때까지 음주의 나쁜 영향에 대해 연맹 회장으로서 도전하고 투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윌라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인이 없어 힘들어 했습니다. 이 투쟁은 그로 하여금 열심히 선행을 행함으로 그 구원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고 그 결과 교육과 개혁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윌라드는 여러나라를 여행하게 되면서 선행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여행 중 그는 교육의 기회와 재정적 자원 (혹은 자원의 고갈)의 관계가 여성의 억압에 미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1 증거 텍스트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증거 하기 위해서 성경의 문백과 상관없이 잘라서 사용하는 귀절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학계에서는 여성으로써 지도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교계에서는 안수사역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윌라드는 그녀의 기독교인으로써의 소명을 NWCTU에 헌신하며 선행을 계속했습니다. NWCTU 안에서, 윌라드는 여성의 전도사역에 참여하고, 권장하였고 NWCTU의 프로그램에 교회의 아이디어를 적용시켰습니다.

윌라드는 자신의 글 여성과 강단 에서 여성의 안수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는 만약 현재의 단절이 계속된다면 여성들은 스스로가 안수를 줄 수 밖에 없고, 결국엔 여성교회를 만드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라드의 이러한 의견에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또 어떤 이들은 희망을 가졌지만 여성 안수가 곧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숫자의 여자 교인들이 주류 개신교나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탈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NWCTU는 설교와 다른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여성들에게 훈련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연맹을 통해서 윌라드는 여성을 교회의 지도자로 양성하는 교회의 사역을 다시 찾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사역의 역할을 인정받게 했습니다.

## 역사적 순간에 대한 묵상

감리교 역사를 보면 소명을 받은 여성들에게 그 소명을 잘 실행하고, 또 멘토링과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예로 현재와 이전의 여선교회와 디커네스 (Deaconess, 평신도 여성 선교사) 운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교회의 밖이기는 하지만 사회 내부에 속한 조직에서 그들 고유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프랜시스 윌라드에게는 NWCTU가 그랬습니다.)

- 당신이 교회에 속한 여성이라면 어떻게 지도력을 키우며, 사회가 규정짓는 좁은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 당신이 교회에 속한 남성이라면, 여성을 사회가 규정짓는 역할이 아닌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기억 사항

학생 여러분: 이번 과는 5과에 나오는 구약성경 참고 구절에 필요하니까 잘 보관하십시오.

## 추가 성경 공부

두개의 다른 학문적인 관점

- 남성 중심적인 해석은 하'아담 ha'adam이 남성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설을 옹호합니다.
- 여성 중심의 해석은 이 ha'adam은 성별이 없고 “중성적인 존재”<sup>25</sup>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해석은 평등주의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입장을 옹호합니다.<sup>26</sup> 때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가부족<sup>27</sup>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의 인간창조에는 남녀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의 언어에는 남성형, 여성형의 구별이 없습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날개 두쪽이 필요합니다. 한쪽 날개가 다른쪽 날개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남녀가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도 묘사하지 못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ha'adam 하아담 (인간), zakar 자카르(남성), neqebah 네케바(

22 낸시 A. 하디스티, 증거의 부름을 받은 여성들: 19세기 복음주의적 페미니즘, 재판 (녹스빌: 테네시대학교 출판부, 1999) 2 페이지

23 위와 동일, 4-5쪽. 캐롤린 기포드, 편집, 내 마음을 쓰다: 프랜시스 E. 윌라드의 일기 중에서, 1855-96 (앨버나, 일리노이 대학교 출판부, 1995), 6쪽. 프랜시스 윌라드, 50년을 되돌아보다: 어떤 미국 여성의 자서전 (시카고; 여성 금주연맹 출판협회, 1889), 198-225쪽. 윌라드의 여러 사역, NWCTU 리더십과 여성의 복음주의 사역에 관해서는 레이시 워너의 저서, 여성들의구원: 복음주의 신학이론과 실제의 재발견 (웨이코, 베일러 대학 출판부, 2007)을 참조

24 전국 기독교 여성 금주 연맹의 미션 성명서. 이 연맹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를 교육하여, 매일의 삶속에서 술, 불법 마약과 담배를 금하게 하는것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여성) (1:27) - 이 셋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또 ha'adam 하아담(인간), ishshah 이시샤(여성), ish 이시(남성)  
 (3:23) - 이 셋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타락

그들의 아침 혹은 저녁 산책중, 남자와 여자는 뱀과 마주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 하셨나고(3:1)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용감히 대답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가도 교묘히 물어봅니다(1절). 그녀는 “아니, 우리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예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3절)라고 답합니다.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고 말합니다(4절). 그리고 “Elohim 엘로힘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은 다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된다”라고 했습니다(5절). 여자는 그 과일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의 남편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6절). 남편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이 두번째의 창조이야기는 모호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아담 (ha'adam) 혹은 아담(adam)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남자의 이름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인 성별이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도 이 본문에 따르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여자 홀로 있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남자는 뱀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동산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사용의 모호함은 하나님께서 하아담 (ha'adam), 즉 원래의 피조물이 “우리처럼 된다”고 하시는데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피조물인 하아담 (ha'adam) 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기를 마시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은 또한 흙으로 지어졌고 하아다마 (ha'adamah, 흙)로 돌아가기에 죽음도 함께합니다. 아마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뱀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 그들은 둘 다 그 열매를 즐겼고, 둘 다 그들 행동의 결과를 맞습니다. 그들은 둘 다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과 모든 인류에게 지워진 하나님의 책임을 수행해 나갑니다.<sup>25</sup>

## 하와라는 이름

“하와”라는 이름은 그의 남편이 지어 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0).

성경의 저자는 “아담(adam)이 그의 아내를 하와(havah)라 이름 지었음”을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은 “생명”입니다. 이 이름은 전통적으로 영어와 불어로는 이브 (Eve), 상가어로는 에바 (Eva), 스와힐리어로는 히브리어 발음을 따라 하와 (Hawa)라 부릅니다. 하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음은 “삶”이란 단어의 발음과 흡사합니다. 여자는하와havah 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3장 20절).

창세기 3장 16절은 여자의 열등성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주관할 것(mashal)이니라’<sup>26</sup> 라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 ssabon은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말씀, “...너는 네 ssabon 속에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구절에도 나와있는 단어입니다 (3:17).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고통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16에는 여자는 남편(ish)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16절). 이 구절은 남자의 여자에 대한 우월성을 증거하는 증거/인증구절 (proof text)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 (ha'adamah)을 저주하십니다 (17절). 그런데 아담 (adam)은 이 땅 (흙)으로

25 펠리스 트리블과 데이빗 J.A. 클라인즈를 참고할것 펠리스 트리블이 주장하는것은 ha'adam 하아담은 “성별이 구별되지 않는 존재: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두개의 성이 합쳐진것도 아님”. 이브와 아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문헌에 나오는 창세기와 성경(크리스튼 E. 크반, 린다 스키어링, 발레리 H. 지글러 편집; 블루밍턴, 인디애나 대학교1999) 439쪽, 그 중에 그녀의 기사, “한 글자도 제목도 아닌: 창세기 2-3장 20년이 지난 후”를 참조. 성서학자인 데이빗 J.A. 클라인즈도 adam아담은 성별이 없다고 함. 그의 글, “아담, 히브리어로 ‘인간, 인류’: 제임스 바에 답하다,” 베투스 테스트멘툼 3 (2003): 298쪽 참조

26 펠리스 트리블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를 연구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내림.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이야기는 대개 앞 부분과 끝부분에 나온다 창세기 2장은 이 구조를 보여준다. 처음 남자가 창조되고 여자가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는것은 원의 구조이며 그리하여 두 개의 피조물이 평행을 이룬다. 여성의 영성 떠오르다: 페미니스트 독자 (쥬디스 플라스코& 캐롤 크라이스트 편집; 샌프란시스코: 하퍼 &로, 1979) 75쪽 “이브와 아담: 창세기 2-3장 다시 읽기” 참조

27 상가는 중앙 아프리카의 남 콩고의 한 부족 이름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만들어졌습니다. 흙 (ha'adamah)으로 아담(adam)은 돌아갈것입니다 (19절). 여자는 남편을 그리워하거나 원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주관할(mashal)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마살(mashal)은 창세기 1:26에 나오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땅과 온땅을 기는 모든것을 다스리게 하자”의 명령인 라다 (radah, 지배하다, 통제하다)와는 어원이 다릅니다. 인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 통제 (radah) 하는것이 아니라 주관하는(mashal) 것입니다.

이 마살(mashal)이란 말은 창조 이야기 중, 창세기 1:18, 두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낮을 마살(“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마살 (“주관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 동사 마살을 창세기 1-3장에 걸쳐 읽으면 마살의 본질이 무어라 생각되니까?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는것 (창 1:18)은 무슨 뜻입니까? 땅은 빛을 원합니다. 그래서 빛은 땅보다 우월 합니까?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것은 땅이 해나 달을 원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임신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관합니다.<sup>30</sup> 이것이 여자를 열등하게 합니까?

## 추가 성경 공부의 성경 묵상

- 성별과 무성별의 두 관점, 그리고 남성 위주와 여성 위주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 하십니까?
- 창세기 3장을 “주관하다”(마살)에 초점을 맞추고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빛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빛 (달)이 밤을 주관한다는 것을 읽을 때, 창조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연관된 것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하시게 됐습니까?
- 여자의 출산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십시오(창 3:16). 성경에 이것이 저주라고 나와있습니까? 출산 없이 승리가 가능합니까? 창세기 3:15와 고린도전서 15:22 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말씀 사이에 연결을 지으실 수 있습니까? 설명하십시오.

28 각주 25를 보십시오

29 캐롤 마이어는 이 귀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마이어는 이 귀절을 “... 출산 중의 너의 ‘아픔’이”가 “...너의 수고와 너의 heronek 임신이.”로 주장합니다. “이브”, 성서에 나오는 여인들, 81쪽. 몇몇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것을 성에 관계된 관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30 여기에서 우리는 번역자가 뜻을 정하는 힘을 봅니다. Mashal 마살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것으로 이해되선 안됩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용어

Adam 아담	(히브리어) (창1:26) 일반적이고 성별이 없는 말, 바다, 공중, 땅의 생물과 구별된 존재. 인간 전체를 칭하거나, 여성 남성에 상관없이 인간 한 개인을 지칭. 남자와 여자 처럼, 우리는 보편적인 아담의 일부이다.
androcentric 남성 중심적인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Elohim 엘로힘	(히브리어) 하나님
ezer 에저	(히브리어) (창2:18); 돕는자, 주종적이 아닌 동반자적 의미
gynocentric 여성 중심적인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는것. 때로는 여자가 남자 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ha'adam 하아담	(히브리어) (창1:27) 성별이 없음. 어떤 번역에 따라 하아담이, 이름, 아담으로 되었고, 사람이라 번역됨. 여기서는 him (남자)의 남성형으로 번역되었지만 특별히 남성, 여성의 구별이 없다.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심.
ha'adamah 하아다마	(히브리어) (창2:7); 땅
havah 하와	(히브리어) (창 3:20); “삶”의 뜻; 영어로는 이브 (Eve)로 번역됨; 여자는 하와라 불리웠는데,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 (20절)
ish 이쉬	(히브리어) (창2:23) 남자; 여자와 가깝고 닮은 모습, 지배하지 않는다.
ishshah 이쉬샤	(히브리어) (창 2:23); 여자; 남자와 가깝고 닮은 모습, 주종적이 아니고 남자보다 과소 평가되지도 않는다.
mashal 마살	(히브리어) (창 3:16) 다스린다; 창세기 1:26에 나오는 지배를 내포하지 않음
nequebah 네케바	(히브리어) (창 1:27); 여성; 처음 사용된 성별이 구별된 단어로써 생물학적 의미
proof text 프루프 텍스트	성경을 그 맥락에서 떼어내어 자기가 주장을 증거하기 위해 이용하는 귀절
ssabon 싸본	(히브리어) (창 3:17); 고통
zakar 자카르	(히브리어) (창1:27); 남성; 처음 사용된 성별이 구별된 단어로써 생물학적 의미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4과

### 탐구 ↔ 신앙/깨달음

#### 주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신앙을 통해서 때로는 탐구함을 통해서 그들의 소명에 생을 바칩니다. 이 신앙과 탐구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역하는 삶 속에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 초대

여러분은 신앙과 실천을 더욱 깊이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 속에서 더욱 강하게 실현해야겠다는 도전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십시오! 성별, 계급, 문화, 인종 등과는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세례에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라는 소명감으로 사역에 참여한 여성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 성경 말씀

이 과의 “성경 속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 서문

성경 이야기 속에,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은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혼자 있을 때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나,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눈 깜빡할 사이에 오기도 하고, 오랜 기간을 통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옵니다. 이 여성들은 부르심을 깊이 경청하고,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신앙이 이 여성들로 하여금 탐구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자 하거나, 신앙의 선조들의 신학에 대해 알고자 하고, 현대의 삶의 비평적 사고를 하게됩니다.

한편, 탐구 역시 신앙과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질문을 통해, 현재의 생활 속의 대화를 통해, 신앙의 깊은 부르심으로 인도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사역에 헌신하며, 세례를 통해 서원한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탐구를 더 깊게하고, 탐구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됩니다. 2004년도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우리의 신학적 과제” (104항)에서 우리가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비판적이며 건설적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비판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신앙적 표현에 대하여 묻는다. 그것이 참인가? 적절한가? 불분명한가? 수궁이 가는가? 신빙성이 있는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가? 모든 신앙의 표현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전통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복음에 충실하며, 인간의 체험과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볼때 진실하며 납득이 가는것으로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가? 등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또한 건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계시, 죄, 구원, 예배, 교회, 자유, 정의, 도덕적 책임등,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신학적 개념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해 보기 위하여 각 세대는 지난날의 지혜를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에 단단한 기초를 둔 기독교인으로서, 변화하는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와 신앙을 가져야 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우리의 사명의 삶과 엮여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복음을 따라, 예수님과의 삶을 택했습니다. 사회적인 법칙인 성별, 계급, 문화, 인종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부르심에 깊이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고, 고난 가운데 힘을 내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음은 성경, 역사, 그리고 현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들입니다.

## 성경 속의 여성들

삼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 (사사기 13:4-5)

-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임신을 예측했습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금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여성을 통해 하나님은 삼손을 얻으셨습니다.

한나 (사무엘상 1:11, 22)

- 기도의 여인. 한나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주님께 바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얻으셨습니다.

시녀 (마태 26:69-75; 마가 14:66-72, 누가 22:54-62, 요한 18:15-18)

-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시녀는 두번 더 베드로를 지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녀의 베드로에 대한 도전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드보라 (사사기 4-5)

- 이스라엘의 다섯번째 사사. 여선지자이며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드보라의 능력은 막강했으므로 바락장군은 그녀 없이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여자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라합 (여호수아 2)

- 라합은 히브리 첩자 두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녀를 창녀로서가 아니라 용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이세벨 (열왕기 상 18)

- 이스라엘왕 아합 (기원전 871-852)의 아내이자 시돈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녀는 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남을 지배하며, 쉽게 비난하고, 권한을 쥐고자 하고,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고, 독설을 잘 퍼붓고, 고집이 세며, 인내심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세벨이 바알신을 위해서 한 것처럼, 기독교 여성들은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의 아내 (마태복음 27:19)

-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나 이방인인 동박박사의 말이 직접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빌라도의 아내의 말은 간접적으로, 남자 전령에 의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여자나 남자나 그들의 인종이나 성별에 구별없이 여러 사람들을 쓰십니다.

죄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

- “죄 많은 여인,”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인,” 혹은 “옥합을 가진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 전부를 쏟아 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옥합에 든 가장 소중한 향유로 남자들의 만찬을 휘방하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일종의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씨씨 와이넨즈는 “당신은 내 옥합에 든 향유의 가치를 모르십니다”라고 또렷이 말합니다.<sup>31</sup>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밋세바 (사무엘 하 11장)

- 밋세바의 말, 생각, 감정은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윗 쪽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다윗왕은 밋세바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밋세바는 다윗왕의 초대를 거절할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당시와 현재의 권력의 본질과 권력의 남용에 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 열두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마가복음 5:25-34)

- 이 여인은 자신의 이름 대신 앓고있는 병명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뒤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신앙으로 손을 뻗치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그녀의 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 역사적인 여성들

더 완벽한 자료를 위해서는 “부록 1: 연대기”를 보십시오.

### 메리 보산켓 플레처 (1739-1815)

- 가족의 동조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메리 보산켓 플레처는 독신 여성이 발디딜 곳이 없던 초기 감리교 안에서 양육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2과에 그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 줄리아 푸트 (1823-1900)

- 줄리아 푸트는 자신의 생명과 존엄성의 위험을 감수하며 19세기에 최초의 흑인 여성 순회 복음설교자가 됩니다. 그녀는 설교를 통해 여성의 교권과 인종화해를 옹호했습니다.

### 안나 스노우든 올리버

- 굶어 죽을 위기를 무릅쓰면서도 올리버는 그녀의 사명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안수 사역을 추구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의 신학 공부하여 보스턴 대학의 첫 여성 졸업생이 됩니다. 그러나, 1880년 안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올리버는 앤드류스 감독께 그녀가 다음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였습니다. 감독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떠나는 것 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 아만다 베리 스미스 (1837-1915)

- 노예로, 13 자녀 중 장녀로 출생했습니다.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었지만,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며 설교를 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 루시 라이더 마이어 (1849-1922)

-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여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던 시절에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평신도여성선교사(디커니스, Deaconess) 운동을 부활시켰습니다.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들에게 훈련과 사역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31 “옥합”, CD 옥합 애서, 씨씨 와이난즈, 1999 발매

### 프랜시스 윌라드 (1839-1898)

- 전국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여성의 투표권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훈련받을 기회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여 사역하는것을 옹호했습니다. 1888년 그녀가 속한 연회에서 총회 평신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 당했습니다. (제 3과 참조)

### 벨 해리스 베넷 (1852-1922)

- 그녀는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들의 사역의 기회 뿐만 아니라 남부의 인종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했습니다. 그녀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남감리교회는 여성에게도 온전한 평신도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선교사 양성학교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메리 맥클리오드 베티 (1875-1955)

- 가난을 무릅쓰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흑인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그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사역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 미 대통령의 고문을 지냈고 인종 평등의 옹호자입니다.

## 조지아 하크네스 (1891-1974)

- 신학 교육자라는 자신의 직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안수를 포함한 여성들의 교권을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20세기의 선구자였습니다. 여성 최초로 미국 주류 개신교 신학교에서 강의하였고, 사회 정의의 대변자로서 대담하고 선견지명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1956년 총회에서, 여성들이 교역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인정받았을 때 그 여성의 안수를 가능케 한 한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사역에의 부름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안수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들중 한 사람”입니다 (켈러, 조지아 하크네스).

## 현대의 여성들

### 리온틴 T.C. 켈러

- 조롱과 실패를 무릅쓰고 연합감리교의 최초의 여자 흑인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84).

### 미네르바 카르카노

- 최초의 히스패닉 여자 감리사 (1986-1992)로 그리고 최초의 히스패닉 여자 감독으로 2004년 선출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민자,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말하며, 사회와 교회의 소리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노부코 미야케 스토너

- 현재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최초의 일본계 아메리칸 감리사입니다. 그녀의 가족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라는 힘든 상황을 극복한,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입니다.

### 리아투 카네

- 나이지리아 UMC에서 최초로 안수 받은 여성입니다(1990년대 중반). 여성 지도자에 대한 문화적 교회적 갈등과 알력을 극복한 기혼 여성입니다.

### 다이아나 역

- 몬타나 태생으로 평생 감리교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다른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열기에 힘써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비교 종교학과 인도학 교수로서 “미국과 지구촌에서 여러 종교를 포용하고 이해한다는 힘든 과제를 다루는 감동적인 목소리”라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로 다른 신앙인들이 서로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하며 지구촌으로 연결된 우리의 연대 관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연합감리교 여권신장위원회 2007년 3월 후보삽입물)

### 조이스린 엘더즈

- 흑인 최초로, 또한 여성 최초로 미국 보사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할 때, 먼저 예방을 염두에 두게 하는 사고의 변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아칸소주 샤아알이라는 농촌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미육군에서 복무했고 의료, 정치 방면으로 아동, 10대, 가정, 여자와 노인들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녀는 “한 나라의 건강과 부는 그 나라 여성들의 건강과 교육에 직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감리교 여권신장위원회 2007년 3월 후보삽입물)

### 카티아 리지나

- 아칸소주 셔우드에 사는 16세 소녀가 그녀가 속해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칸소주 노스 리틀락에 있는 제일 연합감리교회 교인인 카티아는 ‘짐 찾기 (baggage claim)’란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폼이거나 살짝 사용한 수트케이스, 배낭, 보스턴백을 아칸소주의 보호아동들 (정부의 보조하에 등록된 보호부모와 사는 아동들) 을위해 수집하는 운동입니다. 카티아는 수집한 가방들을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주 정부 기관을 통해 배급하게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소유물은 가방이 있을 경우에 캐리어 하나면 다 찾습니다. 카티아는 2000년 러시아의 에카테린버그에 살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양실조에다가 간질이 있었고 다리와 척추는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전혀 못했습니다. 수많은 수술과 영어를 열심히 배운 후, 카티아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고 남들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온라인 인터프리터 잡지)

## 여성의 리더십을 축하하는 기도문

다음의 세 페이지에 전문이 있습니다

### 기도문의 목상

이 기도문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부름에 충실한 자매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와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용기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 속에, 당신의 이야기와 그 자매의 이야기는 어떻게 얽혀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이 기도문에 넣는다면, 어떻게 쓰여질까요?

### 하나님이 재능을 주십니다

[시편 111편의 머릿글자로 문장을 만든 것과 시편136편의 회중이 대답하는 식을 따서 딜리아 헬버슨이 현대화한 예배문입니다.]

**A n** 한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삼손을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Because**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기에, 아들을 주께 바칠것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Challenging** 그의 정체성을 도전한 하녀에 의해, 베드로가 자신의 주님과 관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Deborah** 드보라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다섯번째 사사이며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Even** 한때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선물인 용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Faith** 신앙은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Gratitude** 감사와 사랑은 죄많은 여인을 예수님께 경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Helping** 가난한자들을 돕고, 양육하고, 설교하는것도 메리 보산켓 플랫처가 보여준 재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Itinerant** 순회부흥회는 19세기의 미국인 흑인 여성, 줄리아 홉을 전국으로 다니며 여성의 교권과 인종화해를 대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Justice**메리 머클리어드 벤톤에게는 미국의 젊은 흑인여성들의 정의와 기회는 가난의 위협 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Kinship** 타 종교에 대한 가족같은 관계와 이해가 몬타나 태생 평생감리교인인 다이아나 엑을 하버드대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Leontine** 리온턴 T.C. 켈리는 조롱과 실패를 무릅쓰고 UMC 최초의 흑인여자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Minerva** 미네르바 카르카노는 현재 사막-남서연회의 감독입니다. 이민자, 여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소리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No노부코** 미야케 스톤의 가족은 아무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Opportunity** “기회를 여성들에게”는 프랜시스 윌라드의 주제였고, 전국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여성의 투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Pursuing** 보스턴대학교에서의 신학공부를 추구했던 안나 스노든 올리버는, 안수사역에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 굶어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Questions** 리아투 카네가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에서 가정을 유지해가며 최초의 안수받은 여교역자가 되려할때, 여러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Risking** 그녀가 속한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루시 라이더 마이어는 여성들을 훈련하고 사역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Safety** 아만다 베리 스미스가 세계 여러 곳을 설교하며 복음성가를 부르며 돌아다닐때 안전은 문제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Theological** 신학교육은 조지아 하크네스가 미국 내 주류 개신교 신학교에서 최초의 여자 교수로 강의했을때 더 한층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사역의 부름은 안수 받은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United** 미 할중국 보사부장관 자슬린 엘더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싸웠는데, 특히 예방을 중요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Vibrant** 자신의 부름에 강한 열정을 보이며, 16세의 카티야 리지나는 영양 실조와 간질을 극복하고 “짐 찾기 baggage claim”이란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새것이거나 살짝 쓴 캐리어, 배낭, 보스턴백을 수집하여 보호아동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Wife** 빌라도의 아내,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X-rated** 다윗왕의 밧세바에 대한 외설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하여 그 다음 히브리인들의 지도자인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Young**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하나님의 사역에의 부름에 열심히 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Zeal** 우리 조상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드린것은 뜨거운 열정이라고 묘사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은 오늘날의 여성들이 평신도나 안수 사역의 길로 가려할때 어떤 영감을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의 어떤 재능을 드릴 수 있을까요?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5과

### 깨어짐-온전함

#### 주제

여성들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 특히 여성안수는 교회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확인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 초대

연합감리교회는 성서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 안수를 포함한 여성의 온전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성경 말씀 속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11:7-12, 14:20-25, 14:33a-35; 디모데전서2:11b-15; 갈라디아서 3:28

#### 성서적

남콩고 연회가1983년 첫 여교역자를 안수했을때, 알력이 생겨서 그 결과 두개의 다른 그룹이 생겼습니다. 한 그룹은 인류의 첫 시작인 천지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의 지지자들은 창세기 2장과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7-12와 14:33a-35, 디모데전서2:11b-15를 인용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남녀가 동등한 가치를 지녔고 상부상조하게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새도 하나의 날개 만으로 날 수 없듯이, 교회도 남자와 여자가 두날개가 되어 함께 지도적인 위치로 함께 섬기지 못하면 온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갈라디아서 3:28을 인용했습니다.

이 알력과 불일치는 연합감리교회를 포함한 오늘날의 교회에도 남아있습니다. 함께 이 성경 말씀들을 깨어짐 속에서 온전함을 찾는 희망을 가지고 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창세기 1 - 3

(이 성경공부의 제3과를 보십시오. 3과는 인간의 창조와 하와의 역할에 관한 성경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5과에서 다루는 신약성서의 말씀은 그들의 주장을 위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 11:2-16

너희가 모든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자는 그 머리를 욱되게 하는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자는 그 머리를 욱되게 하는것이니 이는 머리 밍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위하여 지음받은것이니 이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돌지니라.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것을 대신하여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고전 11:2-16, 14:20-25, 33a-35 그리고 딤후 2:11b-15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쓴 글로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와 역할을 다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2-16에서 바울 사도는 남자와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예배 의식에서 남자나 여자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예언을 했다고 고린도 전서 11:5에 적혀있는데 이 전통은 히브리성서, 곧 구약성서 시기부터 계속되 오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4:4의 드보라의 이야기).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예배 중 머리를 가리느냐 안가리느냐의 문제 등 그 당시 관행 중 부적절한 부분에 관해 역설했습니다. 14-15절에서 바울은 남자가 긴머리를 했을때 “본성”이 “욕되는것”이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여자에게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sup>32</sup> 하지만 인류 시작때 부터 어떤 남자들은 긴 머리를 했습니다. 이 머리에 관련된 사항은 바울이 본인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라 봐야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남자와 여자가 머리 모양을 비슷하게 하여 성별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sup>33</sup> 어찌 되었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절). 그리고 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 창세기 1:26-27의 이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신학적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바울사도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7절). 둘째, “남자는 여자로 부터 나지 않았으나, 여자는 남자로 부터 태어났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8절). 셋째, 남자는 여자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여자는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9절).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런 남녀의 구별이 결국은 남녀 상호부조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주 안에서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부터 났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라고 강조합니다 (11-12절). 바울사도의 동등함의 원칙은 다시 갈라디아서 3:28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여기서 인종적, 사회적, 성별의 벽에 도전하며 기독교의 평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 고린도전서 14:20-25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다른 방언을 말하는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28:11, 신명기28:49)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자들을 위하는 표적이거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32 근거도 없이 혼동을 일으키는 결론이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남성들이 긴머리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묘사된다.

33 제롬 머피-오코너, ”고린도전서11:2-16의 성별과 논리,”가톨릭성서계간지42 (1980) 482-500쪽, 특히 498쪽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옆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고 전파하리라.

두번째 구절에서 (고린도전서 14:20-25), 바울사도는 교회의 전교인들이 한곳에 모여, 믿는자들로서 예언하는것을 말합니다 (23절). 같은 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사도는 선지자를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장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4절).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같이 예언을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런식으로 남자나 여자나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4:33b-36에서 바울사도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34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것은 부끄러운것이라” (35절)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훈계는 여쩌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의견을 얘기 하고 다녔음을 보여준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바울사도가 싫어한 듯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디모데전서 2:11-15

여자는 일절 순종과 침묵으로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NIV)

여성의 교회에서의 지도력에 반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온 이 마지막 성경구절 (딤후 2:11-15)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여자들에게 조용하라고 지시합니다(11절).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12절). 그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편보다 권위를 갖는 것은 복종의 전통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세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창세기 3:15-16a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근거를 둔것입니다.

첫째, 바울사도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 후에 하와”(딤후 2:13)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한 것은 여자”(14a절)라고 합니다. 셋째로, 여자가 범법자가 되었다(14b절)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여자의 구원에 대해 선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신학적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들이 신앙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면,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NIV 15절)

창세기 1-3장에 대한 바울사도의 이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약성서신학의 이해와 다릅니다 (제3과를 참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절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교회와 사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며, 서로를 어떻게 대할가 하는것이 결정지어 질것입니다.

## 말씀 묵상

바울사도의 서신 안에 교회에서 여성의 온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온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도이며 선교사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가르침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성의 역할에 관한 바울사도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하는 바와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다른 기독교인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바울사도의 가르침에 관해 해석을 달리한다면, 서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과 추가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읽어 주십시오.)

## 추가 성경공부

(이 과 끝의 용어를 보십시오.)

### 디모데전서 2:11-15

디모데전서 2:11-15에는 논의할 여지 없이 야훼스트(Yahwist)의 창조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 장, 특히7절, 21-22절). 이 구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창세기 2장을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증거하는 문구로 인용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13-14에서 왜 여자가 종속적인 존재인가를 말하는데, 그 근거는 첫째,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그 이후에 창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인간의 타락에 관해 죄를 지은 것은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저자에 의하면, 여자의 구원은 아이의 해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세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은 디모데전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상하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하나님께서 하아담 (ha'adam남성형 명사)을 하아다마 (ha'adamah여성형 명사) “땅”이라는 뜻에서 만드셨다는 사실 (2장 7절)은 하아담을 땅보다 열등하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아담에게 “조력자” (ezer, 에저)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2장 18 절). 제 3과에서 말한것처럼 히브리 성경 (구약)에 이 조력자라는 말은 21번 나옵니다. 4번은 군사적 도움을 지칭하며, 17번은 하나님이 조력자이십니다. 성경의 어디를 봐도 조력자라는 말이 더 약하거나 열등하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담 역시 하와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열매를 거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이것은 창세기 3:1-13의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자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3:6) 고 합니다. 남자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만큼 (2:19-23) 영민하다고 가정해 보면, 과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구별할만한 사고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11-15의 저자는 창조이야기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에 표현된 그의 해석은 창세기 저자나 하나님 말씀하시느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이해와 크게 다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남자와 여자의 눈이 동시에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3:7)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하려다가 서로에게서 고립되고 창조주로부터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차별없이 하나님은 이들 각각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디모데전서 2:15의 저자는, “만약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출산을 통해 구원 받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출산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15a절의 말은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라는 창세기 3:16b와 흡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15에서 해산을 통한 여자의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정숙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저자는 창세기 3:16b을 이용하여 그가 다루고자 하는 교회의 문제들, 즉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 (딤후 1:3), 그래서 믿음보다는 신화나 계보를 퍼뜨리는 것 (1:4),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4:1),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 (4:3) 등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가정, 아이들, 과부의 혼인에 관련된 가르침을 꼭 해주고 싶어합니다 (5:9-10, 13-16). 여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5:13).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말하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2장의 저자는 창세기 해석을 통해 여자의 구원은 분명히 해산을 통해서 있는데, 그것은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34 윌리엄 O. 워커, Jr. “고린도전서11:2-16과 바울사도의 여자에 대한 견해”, 성서문학 저널 94호(1975): 94-109

35 사이버-포클라이데스, 헬라화된 유대인이며 바울사도 당대의 사람: 다음과 같이 부모들에게 조언함: “아이가 남자이면, 머리가 길게하지말며; 정수리를 땅지말고, 머리 위를 목지도 말라. 긴 머리는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육감적인 여자에게나 어울린다... (v. 210-14) P.W. 반 데어 호르스트, 사이버-포클라이데스 문장의 해설과 주석 (라이텐; 브릴, 1978): 81-83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고린도전서 11:7-9

디모데전서 2장의 왜곡된 창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7-9에서도 반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1:7-9에 의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3과에서 보았듯이) 창조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11-12와도 대립되는데, 이 구절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전 11:11-12). 이 두 본문은 갈라디아서 3:28의 평등선언과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교회의 지도자인 두개의 날개로 나아가야 할 바를 한 목소리로 말해 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28).

## 추가 성경공부의 말씀 묵상

성경에 일관성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1:2-6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학자들은 이 말씀에 일관성이 없음을 봅니다. 워커교수는 고린도전서 11:2-6이 처음에는 3개의 단원으로 구분 되어 각각 다르면서도 관련된 주제를 다룬 삽입 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워커 교수는 이 세 단원의 어느것도 확실하게 바울사도가 쓴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sup>34</sup>

-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셨습니까?
- 기도와 예언에 있어 명백히 여자들이 남자와 같은 기능을 했다는 고린도전서 11:5의 말씀은 여러분의 이해를 변화시킵니까?
- 어떤 모순이 보입니까?
- 이제 바울사도가 말한 부적절한 머리 가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sup>35</sup> 이것이 절대적으로 여자가 고린도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갖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까 -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사도는 머리를 가리는 것을 지시한 이유로 세가지 신학적 답을 제시합니다. 이 세가지를 각각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번째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고전 11:7)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8절)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9절)이라는 점입니다.

-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바울사도의 신학적 이해에 대해 토론하고 숙고해 보신 결과, 바울사도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결론을 맺은 바울사도의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2:11-15에서도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11절)라고 하며 또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조용히 하라(12절)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그의 명령을 정당화 하기 위해 창세기 3:15-16a를 인용합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후에 하와가 창조되었다” (딤후전 2:13), “아담이 속임을 당하지 않았으나, 여자가 속임을 당했다” (14a), 그리하여 “여자가 죄를 지었다”(14b) 등의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여자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충실하면, 출산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5절).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 바울사도의 창세기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해석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알렉산드리아의 파일로 (Philo of Alexandria, 주전 20-주후50년)는 유대계의 헬라 철학자였는데 바울사도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창세기 해석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여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6 R. 마커스, 파일로, 부록 1: 창세기에 대한 질문과 응답 (LCL; 런던: 하이네만; 케임브리지, 하버드대학교, 1953), 16페이지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왜 여자는 다른 짐승이나 남자처럼 흠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남자의 옆구리로 만들어졌나? 첫째,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와 그 영광 [doxa 독사, 고대 헬라어]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나이가 같지 않고 더 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의 적령기를 지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한다. 셋째, 남자는 여자를 남자 자신의 아주 필요한 일부로 생각하고 돌보고자 한다. 그러나, 반면 여자에게는 남자가 전부여야한다. 넷째, 충고하기를, 남자는 여자를 딸을 돌보듯 하고, 여자는 남자를 아버지를 모시듯 해야한다.”<sup>36</sup>

- 파일로의 여자에 대한 태도는 바울사도의 태도보다 더 나은가요, 아니면 더 나쁜가요?
- 이 두 사람은 “여자는 열등하지만,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 미혼 여성들은 누구에게 그들의 질문과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까?
- 남편들은 부인이 교회에서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집에 도착하면 그때야 비로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부인을 대신해서 말하고, 항상 그녀를 가르치고, 항상 그녀의 질문을 답해 주어야하는 책임을 원하십니까?
- 이 과의 성경 말씀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성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제외 되어야한다는 것을 시사하십니까?

37 식민주의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제도, 흔히 경제적인 착취가 목적.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6과

### 앞으로 나가며

#### 주제

모든 이들을 사역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는 소명을 탐구하고,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 초대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여성의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동참합니까? 남성인 경우, 여성들이 계속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신실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21-28; 마가복음 7:24-30; 마태복음 28-19

#### 성경 묵상

여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부르시는 그 부름을 탐구하고, 도전하고,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과에서 언급한것 같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마태복음 끝 부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태복음 28-19)고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녀를 통해서 딸 뿐 아니라 공동체도 치유받게 합니다.

다른 복음에 나오는 비슷한 본문 (마가복음 7:24-30)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나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나옵니다 (26절). 이 여인은 어떤 집 안에서 예수님께 다가 갑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은 마태복음 15:21-28과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비록 두 본문이 자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인사이더-아웃사이더,” 혹은 “속하는자 - 속하지 않는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위치를 받아들였다면 상에 함께 앉을 자리는 없이, 상 밑이나 상 둘레에서 꼬리치고 서있는 작은 개와 같이 행동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과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2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들도 온전히 그들의 삶을 통해 부르심을 받음과 교회를 통해서 여성들도 섬기는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3과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관한 창세기 1-3장의 말씀의 여러가지 해석을 공부하였고, 4과에서, 신앙 속에 살아가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는 권장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가나안 여인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1과때 했던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가나안 여인의 끈질김은 그녀 자신과 그 딸에게만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하여 우리가 어떻게 파괴적인 차별, 편견, 억압을 초월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세례와 부름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차별, 식민주의<sup>37</sup>, 인종차별주의 등의 악을 우리 세대에 멸소시킬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러한 파괴적인 제도를 뛰어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문화적 시대적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역사적

(부록1: 역사적 연대기를 보십시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예로부터 여성들은 예배, 성경공부, 사회정의 그리고 은혜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 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늦게 반응할 때가 많고, 사역에 부름받은 여성들은 교회가 빨리 하나님의 비전에 쫓아오기를 기다곤 했습니다.

1956년 여성을 교회의 온전한 권리를 가진 목회자로 받아들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청원서가 감리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토의와,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를 통해, 총회는 여성목회자의 온전한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록 3: 1956년도 총회의 낭독극 대본을 보십시오.) 이 총회 대의원의 반은 목회자 (전부 남자), 반은 평신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성목회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여성목회자들을 위해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그룹,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는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 현대

오늘날,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에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사회원칙은 “기도와 사려 깊은 노력으로... 현재 세계의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건실한 성서적, 신학적 토대위에 말하는 것이다”라고 써있습니다 - 2004년도 장정, 99쪽)

¶161항. 제2절 양육하는 공동체, F) 여성과 남성

우리는 성경과 함께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가치를 지닌 평등한 인간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하나의 성이 다른 성보다 우월하며, 한 성이 다른 성과 겨루어야하며, 한 성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성에 속한 사람들을 희생하여 가며 사랑과 권력과 존경을 받아야한다는 그릇된 개념을 거부한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성과 결합할때에만 온전하여진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권리를 공유하며, 대가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온전함을 완성케하고 존경하기를 권유한다. 우리는 모든 개개인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정의를 주고, 윤리적인 자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자유를 추구한다. 성의 다양성은, 인간 경험과 견해에 풍성한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좋은 선물을, 한 그룹의 성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 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데 사용하는 태도와 전통을 배격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성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권능을 받았습니까? 남성으로서, 어떻게 이해의 문을 열고, 여성들의 믿음을 환영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었습니까?

당신은 전에 여자가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지도자의 자리를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 앤 B. 커 박사는 2004년 2월, 만장일치로 연합감리교 소속 학교인 남 플로리다 대학교 17대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학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커박사는 “이 나라의 중요한 연합감리교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 우리 학교는 위대하게 될 준비가 되어있고, 저는 지속되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에 기대감을 갖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나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권위와 책임있는 지도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 용어

성화 부족주의	하나님과 의 관계 속에 자라남 어떤 사람을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에 따라 다른 그룹과 그가 속한 그룹으로 나누는 것
ezer	(히브리어) (창세기 2:18): 조력자,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서
ha'adam	(히브리어) (창세기 1:27): 성별이 없음, 어떤 번역에 의하면 하아담이 이름 (아담)으로 하아담 되어 남자라고 번역되어졌다. 이 성경구절에서 사람 (him)으로 지칭되어서 남성형이 됐는데, 특별히 남자나 여자를 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나중에 두 인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신다.
ha'adamah	(히브리어) (창세기 2:7): 땅 하아다마
proof text	어떤 특정한 점을 증거해 보이려고, 성경의 부분만을 떼어내어 사용하는 증거구절 프루프 텍스트
Yahwist	창세기 1장의 저자가 아닌, 창세기의 일부를 쓴 것으로 여겨지는 저자 야히스트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당신은 부름에 예라고 답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나 남자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십니까?

- 린다 모블리는 10대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한때 조부모와 생활했는데, 일곱명의 자녀 중 장녀였습니다. “학교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한명도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맨 바닥이었고,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 . 그리고 나는 지독하게 부끄럼을 탔습니다. . . 그런데 고2 가을에, 두 여자애들이 나와 친구가 되기로 걱정했나 봅니다. 그 애들은 나와 복도를 같이 걸어가기 시작했고 내가 진짜 느낌을 가진 진짜 사람이기라도 한것 처럼 대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애들은 실제로 사춘기 아이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를 상관하지 않고 카페테리아에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약 두달 후 이 애들이 나를 MYF (Methodist Youth Fellowship, 감리교 유스 펠로쉽)라는데 데려갔습니다. . . 나는 교회라는 곳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이 두 친구들을 믿고 갔습니다.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또 내 친구가 되기로 한 이 두 여고생들이 아니었다면, 또 만약에 이 애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가르친 어른들이 없게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소년 목회자란 무엇인가?” YouthNet, 1994 가을)

이 글을 쓰고 있던 당시, 린다는 연합감리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여성들의 재능을 끌어 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삶 전체를 보기위해 공동체가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1956년, 연합감리교단의 전신인 감리교회 총회에 청원서가 올라왔을 때,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투표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장했고, 20세기의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을 신앙으로 구체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총회는 감리교회 내의 여교역자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주는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시대의 동이 텃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지위와 권능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여성을 향한 지도자로서의 부름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어떠한가요? 당신은 “세례의 물”을 삶속에 실천하며 사역에의 부름에 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여자 설교자들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눈에는 똑 같은 가치를 지닌 평등한 인간임을 천명한 성서를 따른다” (2004 장정 161항, 2절 F)라고 하는 선언문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 성경공부의 목상

연합감리교회가 여성 교역자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준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카고, 2006년 8월), 폐회예배 때 다음의 “선언문”을 쓴 여교역자의 딸 키야 세리 벨트양이 직접 낭독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뒤를 이어 나올 우리의 딸들, 손녀딸들을 어떻게 지도할것인가 목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언문을 읽으며, 당신의 딸, 손녀, 조카딸, 교인의 아이, 최근에 세례받은 여자아이등 젊은 여성, 혹은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상상하십시오

상상할 목소리의 주인공 이름을 쓰십시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선언문

보여주세요, 나 기도 합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당당히 걸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성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당신은 교회와 세상이 당신에게 던진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기름부음 받으신 것을 엘리야처럼 전해주시고,  
 외투를 제게 입히시고, 엘리사의 표적을 주세요.  
 당신의 지혜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의 기백없이,  
 하나님께로 부터 부름받은 설교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 당신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슬은 끊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설교를 하고 싶고 요새를 단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가르치고, 나의 점토로 나를 빚어 주겠습니까?  
 나의 안내자는 어디에, 어둠 속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과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연마시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변화 시킬때, 당신의 삶 속에서는 복음이 메아리칠가요?  
 길은 벌써 뚫렸고, 대가는 치뤄졌노라고 상기시켜 주시겠습니까?  
 나를 무장시켜주세요, 주님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내려놓는 짐을 내가 집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세요.  
 성령이 내게도 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 없이는 정말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나는 기도 합니다.

주 안의 나의 어머니들, 당신의 딸들을 준비시키소서,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서서 노래 부르리이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진것 없는자와 눈먼자들에게도 -문을 열라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이시어 항상 인도하소서, 나 기도합니다.  
 오, 어머니들, 언니들, 선구자들이시여,

보여주세요, 나 기도 합니다.

케이 웨리 벨트 2005 작자의 허가 필